

| 발간사 |

다시 한번 더 박차를 가합시다



김미애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주) 카프로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봄 날씨도 물러가고 월드컵 열기만큼 뜨거운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업간호사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끄럽게도 이제야 내가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힘을 주는 동기부여 자는 동료이자 근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0주년 창립행사에서 있었던 슬라이드동영상물이 지나온 우리협회의 모습이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저속에 지나온 나의 모습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더욱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 산업간호협회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금지와 자부심보다는 위축되고 외로운 일들이 더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작지만 소중한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 지금 당장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많은 이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리란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들 모두는 산업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문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나빠진 국내외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의 재해, 각종 제도의 신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외된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통계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의 건강문제나 산업재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1998)를 재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48.7%가 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비정규직은 53.1%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성질환도 비정규직은 61.8%, 정규직은 58.7%였고, 이와 함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아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한 경제효과도 지켜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점점 나빠지는 이러한 여건은 고용조건의 불안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원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건강보호의 핵심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 산업간호사가 아닌가 합니다.

비록 여러 선생님들의 현실이 더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등의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때, 또 그것들을 실무에서 실천할 때, 진정 우리 산업간호사들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나타내질 때 우리의 역할과 권리도 확보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진심으로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며,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산업보건정책을 위한 일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회원들의 열악한 입지에 적극적인 대외노력들을 부탁드리며, 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힘을 합쳐 나갈 때에 어떤 외적인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인명존중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순수한 열정으로 산업장에서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을 보여준 많은 선생님들의 인내가 산업간호의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박차를 가합니다.

다양함과 풍성함이 있는 푸르른 녹색의 계절만큼이나 푸른 희망을 가진 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